

2007년 등급판정결과 소 부문 우수상

화일목장 - 박석윤 농가

제주지역본부장 권기백

제주도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아래에 위치한 21세기 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모범농장인 화일목장(대표 박석윤)은 2007년도에 소 등급판정결과 우수상 수상과 2006년도에는 농협이 선정한 전국 10대 깨끗한 목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전남대학교 축산대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별한 사양관리

화일목장은 소와 매우 친화력이 돋보이는 목장이다. 자동차의 경적소리,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멀리서도 달려온다. 또한 목장 면적 30여 만 평에 20여 만 평은 자급사료(오차드그라스, 라이그라스)를 생산하고 10여 만 평은 비육우 150두, 번식우 100두로 한우 250여두의 방목지로 활용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가임 암소들이 10여 개월 간 자연방목 상태에서 사육되며 동절기에도 방목지에서 건조와 농후사료가 급여됨으로써 경영비 절감을 하고 있다.

비육우에게는 출하 3개월 전부터 조이바이오 산삼연구소의 산삼배양액을 음수 첨가하여 육질 고급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

축산의 웅도 제주도와 함께 흑한우 실용화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한우의 품질 향상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안전하고 질 좋은 쇠고기 생산에 있는 힘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인이 되겠다"는 겸손하면서도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익새꽃이 너울대는 방목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